

#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인가?

God's Choice or Ours?

신앙 성장 시리즈 37

##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인가?

God's Choice or Ours?

© 2003, 2004 RBC Ministries,  
Grand Rapids, MI, Printed in USA.

인    쇄 : 2011년 11월 26일  
발    행 : 2011년 11월 27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교    정 : 이재춘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 차례

발간사 / 4

서 문 / 6

제1장\_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복음 ..... 7

제2장\_ 예정설에 대한 복음..... 19

제3장\_ 이스라엘과 교회가 선택된 것에 대한 복음 ... 27

제4장\_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 ..... 43

제5장\_ 하나님의 예지 ..... 57

제6장\_ 선택과 당신 ..... 61

표지 그림 : 이동협 의 “북한산 은거도 2”

## 발간사



하나님의 선택인가? 우리의 선택인가? 이는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로서 에피큐리언 학파와 스토익 학파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족과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의 자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늘 논리적, 철학적 논쟁과 혼란과 더불어 성경적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이 책자를 읽으시더라도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최소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적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만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겸허한 태도로 수용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상복 목사

## 서 문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선택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성경독자들이 계속 추구해온  
질문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교파가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서 RBC 선교회의 선임연구편집장인 허  
브 반도 러그트는 그런 논쟁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지 보여줍니다. 인간의 논리와 철학이 갖고 있는 한계  
를 인식할 때 우리는 성경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틴 알 디 한 2세



## 제1장

#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복음

**내** 전으로 황폐해진 에티오피아의 모습이 저녁 뉴스에 비쳐졌습니다. 내전의 희생자들인 굶주린 사람들과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훼손된 시체들이 나타났고, 한 젊은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타났는가 하면 여섯 살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도 비쳐졌습니다.

“왜? 왜 이렇게 나쁜 뉴스가 많은 것일까?” 사려 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회의에 빠질 것입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면 시청률이 하락한다는 방송계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세상은 왜 이렇게도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은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잡기와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뿐이지요.”라고 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인격적인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반역하여 원래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린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고통과 상실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한 하나님이 계셔서, 특히 인간의 반역이 야기할 그 많은 고통을 미리 알았다면 왜 인간이 반역하도록 그냥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제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견일치는 여기서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를 알고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수용하여 이에 반응하신다고 믿습니다.

##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결정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신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유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선행과, 인간이 저지른 것이 명백한 모든 실책과, 모든 살인과, 모든 강간과, 인간의 선함이나 악함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했던 결과며 그분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예정적인 행위를 믿으면서도 인간은 자신들의 죄악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어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부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을 영원히 포기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으로 토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9살 때 나는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위해 돌아가셨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상반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나의 믿음체계는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세계를 상실하도록 예정되었다고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음울한 예측에 대해 많이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참된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내 부모와 형제들과 대부분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예정되었다는 견해와 그러면서도 우리자신에게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

아 우리는 때때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조화가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긴장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 잠정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우리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이란 진리와 “인간의 책임”이란 진리를 각각 다른 두 개의 칸에 나누어 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인생 전반을 확연하게 둘로 나누어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끔찍한 범죄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당황함과 경악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기로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비극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들 두 칸에 나뉘어 들어있는 가르침이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함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풀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상반되는 가르침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칸이나 “인간의 책임”이라는 칸 중 어느 하나의 칸에서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모든 것을 당연히 끝까지 물고 가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사이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이란 견해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오래된 지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드신 여자 성도인데 임종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족과 친구들의 말을 빌면 그녀는 특별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친절했고, 남을 잘 보살폈으며,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극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녀와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부착된 “하나님의 분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에게 선택 받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그녀의 두려움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가족들을 학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도록 예정되었던 일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속에 있기를 희망하지만 가끔씩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성경구절들을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을 돕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행동이나 운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필연적으로 영원히 저주 받을 사람들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경우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믿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알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자신을 거역하거나 저항할 때 깊이 슬퍼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인간의 삶에 간섭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인간의 삶에 간섭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인간을 모두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딤후전 2:3-4).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의 일에 간섭하십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초월적인 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이게 하는 존재(unmoved mover, 不動의 動者)”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뇌, 혹은 우리가 간청하는 도움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견해는 성경의 모든 장마다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간섭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며(호 11:1, 8),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슬퍼하고(사 63:9), 우리가 회개하면 벌주실 것이라고 협박하던 그의 마음을 바꾸고(렘 18:8; 욥 3:10),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사 42:13; 롬 16:20).

모든 역사, 특히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선택을 하는 일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을 백성들이 믿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한 대단한 장기 고수처럼 그가 미리 계획한 “막판”에 맞춰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항상 장기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는, 인형극 무대의 수많은 꼭두각시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 대본을 쓴 것이라는 결론은 얼토당토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며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어둠속에서 빛을 주며, 악 속에서 선을 주고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그 분께 돌아갈 때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내가 앞서 말했던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나이든 여 성도님은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나이 드신 여성도분과 가족을 학대했던 남편 두 사람 모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강도입니다. 다음 구절이 이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 12:2)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딤후 4:10)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선택 받은 자들의 세상이고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구한 “모

든” 사람이란 단지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은 성경을 “곡해”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 제2장 예정설에 대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족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난했던 숙명론자 남편과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를 담는 그릇”으로 예정되었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으로 비탄에 잠겨 죽음을 두려워하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결과를 계속 통제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높이 사시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설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때문에 성경에서 자신들을 위한 복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잃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결과를 계속 통제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높이 사시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표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음 중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그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정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  
나(행 2:2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과 맞서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동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요1 2:2) 돌아가시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선택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눅 9:35)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그가 선택한 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영원히 예정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솔선하여 주권자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옮겨 오셨습니다.

###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표의 구성 요소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우주 전체의 마지막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우주 전체의 마지막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

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우리를 확신시켜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비난 받을 일 없는 가족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 몰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면 그에 따른 합법적인 징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통과 그 과정에 대한 경이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의 미래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엡 1:48).

## 변화된 사람들의 가족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는 로마서 8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되어 있는 한 무리의 미리 아신 자와 먼저 사랑하신 자들을 자신에게로 데려 오십니다. 이 “닮게 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여(고후 3:18),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1 3:2)일 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형님이 될 것입니다(히 2:10-13).

##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조화로운 우주

성경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는 전 우주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계획에는 남녀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10에서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우

리에게 알려셨으니…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 (골 1:20)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 2:9-11)

예정이란 용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정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이란 하나님의 예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자유의 “이해할 수 없음”을 여전히 지키시면서 어떻게 미리 아시는지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성경이 그 누구도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에 대

해 말한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안에서 하나가 된 우주에서 모든 사람이, 기꺼이 하든 마지못해 하든,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절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 이스라엘과 교회가 선택된 것에 대한 복음

“선택”이란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취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예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택(벧전 1:2)은 항상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베이커 성경신학사전」(266쪽)에 있는 허버트 울프가 쓴 “예지”라는 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예지가 선택에 선행하며 이 예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숙명론이나 결정론과 비슷한 종류로 생각해서

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믿는 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한 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그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한다.

## 선택된 가족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생각해봅시다. 창세기를 대충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들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 점은 그들 족장들에게는 말 할 것 없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쁜 소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선택하여 조상의 계보를 만든 하나님은 그 계보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그 시대의 나머지 인류를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나(창 14:18-20) 율 같은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야곱의 아들로 선택하신 것이 이스마엘이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기회를 잃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여서는 많은 후손을 보았

던 바, 그 후손들은 창조와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주신 축복과 판단력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창 17:17-27).

말라기 1장 3절을 보면 야곱은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을 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번의 기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에서의 후손들을 정죄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가혹한 자비의 손길에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특정한 의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특정한 의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가족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

택했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의 자비와 구원의 범위 밖으로 떨쳐 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세상을 구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세 사람을 선택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 선택된 나라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덕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선택한 것은 다른 나라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그 나라를 자기 사랑의 구체적인 실례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의 사자로 선택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만큼 불순종의 위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을 때 20세기에 그들이 겪은 불행 훨씬 이전에 그들은 “대

학살을 당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전 세계에 축복과 심판에 대한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미스터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분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들이 선택해야하는 일들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백성을 도덕이나 영적인 선택 능력이 없는 바위들이나 숲이나 나무처럼 취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최소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권능 있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루었습니다.

### 선택된 계보

한 가정의 계보를 통해 모든 나라들을 축복 하셨던 하나님은 또 다른 선택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유대 왕 다윗을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구세주의 정통 계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마 1:6-16).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메시아에게 왕의 지위를 물려주는 조상으로 선

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을 저버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다윗의 계보가 아닙니다. 누가가 기술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나오는 스가랴, 시므온, 그리고 안나 같은 열렬한 유대인들 또한 그 계보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 선택된 메시아

이사야서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다른 많은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 시대의 유대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구원자로 군인 구출자의 모습을 하고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 군대 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예수님은 유대 사람

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개념은 유대인 법정의 중심 논제였고(막 14:61-65)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에게 쏟아진 비웃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15:31-32).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을 최후로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 “기름부음을 받은 자,” 단 하나의 “자손”이었습니다.

### 열방 사람들의 선택

사도행전 2장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국제적인 의도를 가지고 더 많은 수의 또 다른 선택 받은 무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알려진 이 선택된 “회중”의 첫 구성원은 유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다수의 이방인으로 충원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선택된 그룹은 “예수님의 몸”(고전 12:27), 그리고 그의 “신부”(계 21:9)라고 불리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전 12:13). 이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이전에 행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갈 3:28; 엡 2:11-22).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증거 하는 일과 하나됨을 발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영원히 선택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엡 1:4)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마태복음 28:19-20에서 말씀하는 선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신도들을 옮겨 가고 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살전 4:13-18).

### 선택하신 목적

교회시대가 끝난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축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때까지 이 세상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창 12:3) 그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7:8).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예: 사 2:1-5; 11:1-16; 렘 23:5-8; 31: 1-14; 겔 36:22-38; 슥 12-14) 이스라엘이 언젠가 그의 메시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비할 데 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리라는 것과 국제적인 평화와 사회의 정의, 세계의 번영, 그리고 저주로 인한 황폐함이 없는 것이 특징인 한 왕국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창 12:3)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지난 이천년 동안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려했던 일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해오셨습니다.

지난 이천년 동안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려했던 일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해오셨습니다.

기원 1세기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방인 신자들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이 선택한 종으로 사용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깨트렸던 것일까요?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여 선택하신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은 밀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리셨다는 생각에 힘들어 했던 유대인 동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신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 후에 바울은 9장 6절에서 “주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주제를 전개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을 이해하면 로마서 9-11장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정설이나 개인의 선택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거나 앞으로 결코 구원 받을 기회가 없을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권능과 특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행함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쓰실 종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리들(롬 9:6-29)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6-1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가계로 선택에 있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혹을 받을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14-18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공혹을 보여 줄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나 자신의 분노를 터뜨릴 본보기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세며 도전적인 사람을 애굽 왕으로 세우신 후,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왕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이후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3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완고함이나 영적 눈멀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밀어내고는 자신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잡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길을 승인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  
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  
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롬 9:14-16).

### 하나님에게는 대적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19-29절).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고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  
람들에게는 분노를 터뜨리는 하나님은 그분께 대적하  
는 자가 가설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비난한 것처럼 공  
정하지 못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바울  
은 그가 바로에 대해 말했던 것을 그를 비판한 사람들  
에게로 돌림으로써 그들을 되받아 쳤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은 하나님이 짧은 기간 동안 바로의 사악함  
을 참으셨고 바로의 고집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불신  
앙을 참으셨고 그것을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수단으  
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25-29절).

“주의 약속은…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사실상, 22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진노의 대상”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목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에서 그런 인내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8-9).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내 바닥이 났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 이스라엘의 책임(롬 9:30-10:21)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현되어 나타났을 때도 그 은혜를 거부하게 한 것입니다(9:30-10:13).

바울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에게 참된 설교자들을 보냈고 하늘에서 사자들을 내려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신자로 남아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10:14-21).

### 하나님의 정당성(롬 11:1-36)

항상 나머지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스라엘을 선택한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1-10절). 이스라엘의 멸망시킴으로서 하나님은 이방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고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줄기에 접목하여 원 가지인 이스라엘에 재접착이 될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얻어질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11-24절).

이스라엘에 관한 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하나님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울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의 노래를 (33-36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제4장

#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사이에 존재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은 선택과 예정설의 문제를 종교적인 사람들 뿐 아니라 비종교적인 사람들 까지도 인생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자신들의 영향 밖에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체념하는 말인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운명의 힘에 맡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환경에 예정하신 일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바로 그러한 숙명론적인 반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이의 남편이 그녀와 어린 아이들을 저버렸다고 말한 뒤 “아마도 하나님은 누이에게 그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기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지요”라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자신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반응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히 미리 예정해놓으신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면서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일어난 일들의 일부분만 영원히 미리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하나님의 자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반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총괄적인 대본이라는 상자에 갇혀 대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목적과 미리 역사를 마감하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예정한 결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역사를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제한적인 자유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성경속의 하나님은 적어도 다섯 가지 선택사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 우리의 일에 진정으로 참여하시며, (2) 우리에게 반응하시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며, (3) 주권적 선택을 하시고, (4) 원하시는 것을 계시하시며, (5)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하십니다.

## 하나님은 제한 받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일에 참여하 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지닌 자들과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참여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첫 부분에서(창 1:28-4:16)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 땅을 채우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맞닥뜨려 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지만 가리지 못하는 보시고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역사를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전반을 통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형상을 지닌 자들과 상호작용하여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알게 하고 순종하면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며

자비와 정죄를 행하십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다정다감함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때로는 마음 상하고,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그들을 위해 고뇌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깊이 간섭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순전함, 긍휼함, 슬픔, 그리고 몸 바쳐 희생하신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를 봅니다. 학자들의 신학이론에 나오는 것으로서 영원히 선포된 교리를 수행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만질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행동에 대해 반응하시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명을 연장해주기를 간청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

어 주시기로 작정하시지만(왕하 20:1-11),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시기를 구하는 바울의 요청은 거절했습니다(고후12:7-10). 다윗이 율법에 의하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으나(삼하 11-12), 레위인만 다루도록 허락된 법궤에 실수로 손을 댄 옷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삼하 6:1-11).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그의 반역적인 태도를 회개하도록 수 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면서 참으셨지만, 그의 사악한 아들 아몬에게는 다만 2년 동안만 왕위에 머물게 했습니다(대하 33:10-25).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전개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어떤 저항할 수 없는 법령에 따라 사람들을 다루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르게 반응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선함, 사랑, 정의, 그리고 자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적인 선택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절대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의 선택이 이런 경우입니다(롬 9:6-13). 하나님은 예레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구별하여 선지자가 될 것으로 지명하셨습니다(렘 1:5).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그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약속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눅 1:11-17). 주님은 닷소 출신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9:15).

하나님이 사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건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누가 말 할 수 있는가?

조지 맥도날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달할 자신의 은총의 선물을 먼저

받아 그다음 전달하게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한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The World Of George MacDonald, Harold Shaw Publishers, 1978, p. 93.).

하나님이 사랑의 목적을 수행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가 계시하고자 원하는 것을 펼칠 자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경교사로서 나의 역할에서 나는 산뜻한 답을 줄 수 없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죽은 우리의 아기를 보게 될까요?”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대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성인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이 되더라도 지금 나의 몸과 닮은 모습일까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 특별한 답을 주지 않

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구절들에서 특정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늘 불확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런 정보는 억제하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을 위하여 악을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질투심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애굽으로 가게 했던 것은 수단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단으로 야곱의 가족에게 변성하여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주셨습니다(창 37-50). 하나님은 라합의 거짓말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수 2).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사용하여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왕상 22). 하나님은 악독하게 저버리는 행위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세계에 구원의 문을 개방할 계기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사용했습니다(롬 11:11).

하나님은 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자가 되거나, 누구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거나,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도우는 것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신 32:4; 히 1:13; 약 1:13; 요1 1:5).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행 2:23) 사악한 사람들에게

내어 준 바 되었음을 선포했고 헤롯과 빌라도,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행 4:28)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술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저지른 형언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두 구절을 함께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설정”(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과 하나님의 “예지”(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를 증오했던 것)가 혼합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영원히 예정한 것은 아닙니다.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에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미래의 모든 일에 필연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건의 확실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뼈가 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건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에게는 그 어떤 필연성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Donald G. Bloesch, Vol. 1, pp47-48).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확실하게 목적을 위한 주권이  
지 반드시 목적을 위한 수단을 나타내는 주권이 아닙

니다.

### 우리의 자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며 진정으로 신앙이나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헌신과 반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존재로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방인 청중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연(롬1:18-20), 양심(롬 2:14-15), 그리고 지혜의 소리(잠1:20-33)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덕성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내 맡기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옮겨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자부심과 자의식을 무너뜨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과 하

고 계신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  
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  
었나니(벧전 1:3-5)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분  
은 갈보리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분이 우리 안으로 들  
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그 분이 예정  
하신 목표에 이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  
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내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믿을 수 있

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제5장 하나님의 예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에 나오는 “미리 알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크게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뜻을 단순히 “미리 알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영원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적하여 믿는 자들이 될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선택된”이란 의미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창조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 단어는 사도행전 26장 5

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단순히 “미리 알다” 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책 곳에서 사용된 이 단어도 같은 뜻으로 번역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영원한 과거부터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 행동, 혹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선택이 어느 정도로 많이 또한 어느 정도로 적게 관계가 있는지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지’ 라는 단어를 이와 같이 해석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신비적인 요소와 인간의 책임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우리의 진정한 자유 중 어느 하나도 축소시키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믿

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 제6장 선택과 당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1 2:2) 라고 선포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도 영원한 형벌 저주를 받도록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17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까?” 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에 자신을 헌신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몸 된 교회입니다(롬 10:9).

당신이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절을 할 것인지 절망을 느끼면서 절을 할 것인지, 당신의 운명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과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복음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절판)
-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절판)
- ④ 복 있는 사람
- ⑤ 균형 있는 가정생활
- ⑥ 왜 살아야 하나?(절판)
- ⑦ 행복한 결혼생활
- ⑧ 남자다운 남자(절판)
- ⑨ 여자다운 여자
- ⑩ 걱정 없이 살고 싶다
- ⑪ 다시 찾은 사랑
-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⑬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 ⑭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 ⑮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절판)
- ⑯ 결혼의 약속(절판)
- ⑰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절판)
- ⑱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 ⑲ 균형있는 기독교
- ⑳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 ㉑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 ㉒ 교회 지도자의 자격
- ㉓ 갈등 해결의 방법
- 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 ㉕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절판)
- ㉖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 ㉗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㉘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 ㉙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아바라
- ㉚ 금보다 귀한 것
- ㉛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 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 ㉝ 스트레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 ㉞ 분노가 타올 때
- ㉟ 말이 상처가 될 때
- ㊱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뒤표지의 헌금 안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양식」 신양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우편번호			H · P																																		
구 분	부 수	월	부	구독기간:	년	월	~	년	월																												
1 신규	2 주소변경	3 부수변경	4 재신청	5 취소	헌금입금은 행 : ( )은행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신청부수																																					

「오늘의 양식」과 「신양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양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